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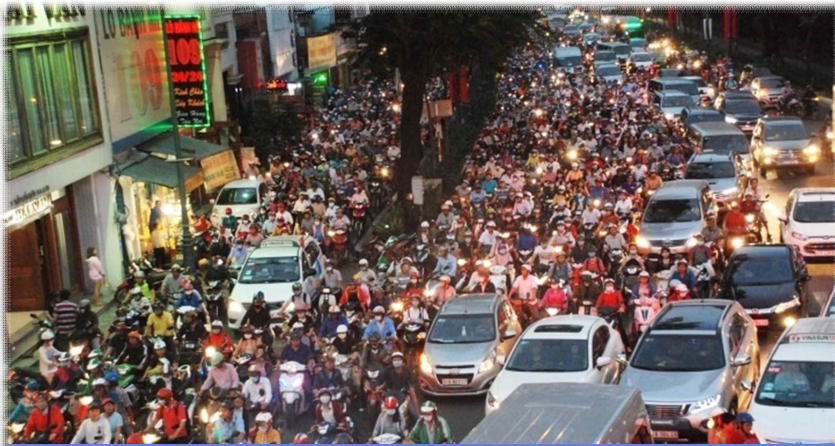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트남 선교사 이장현의 선교편지

▶ 설날,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

설날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보통 설날 전 1주일, 설날 후 1주일을 명절 연휴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트남 설날 귀성길 행렬

▶ 빈푸교회의 새해

베트남에는 세뱃돈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세뱃돈을 줍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빈푸교회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며 새해를 축복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베트남 설날 전통 음식 반땃과 반쯔을 만들어 부모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빈푸교회 설날 모임



베트남 세뱃돈 문화 - Li Xi (리시)



새해 인사 나누기



설날 음식 반땃과 반짱 나누기

♡ 빈푸교회 기도제목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2월부터 빈푸교회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학교에 타고다닐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기마다 2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00만원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10대, 가격은 대당 10만원 정도 / 장학금 100만원
함께 기도해주세요.



▶ 특탕교회의 새해

특탕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하여 간단한 생필품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특탕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도시에서 살던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이주민이 많습니다. 특탕교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미록교회의 새해

미록교회는 고향에 내려가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새해 선물을 나누었고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 정 선교사의 목상

미록교회 바이 할머니 이야기...

예배를 마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교회 성도 모두 모여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바이 할머니는 피곤하시다며 먼저 댁으로 가셨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하시고 요즘 더 기운이 없으신 듯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신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장 선하신 길로 바이 할머니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쫓 목사님이 병원에 모셔가고 응급처치를 하여 바이 할머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었는지 바이 할머니는 아침 일찍 퇴원하시고 말았습니다.

바이 할머니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복권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십니다.

베트남에서는 주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처럼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복권을 팝니다. 어려운 형편에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시고 더운 날씨에 복권을 팔러 다니다 바이 할머니는 기운이 쇠약해지신 것입니다.

바이 할머니 댁에 심방하여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믿은지 얼마되지 않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씀하십니다. 영양제와 간단한 음식을 사 드리고 나오는데 척박한 할머니의 살림살이가 자꾸 저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나그네의 살림살이 같은...

우리 가족이 캐리어 가방 3개만을 가지고 베트남에 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처절하게 어려웠던 그 시기의 눈물어린 기도 제목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 가족의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베트남에서 어려움이 뭘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바이 할머니를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처지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할 수 밖에 없고 몸이 아픈데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의지할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그 고백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아버지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 임이라...”(예레미야애가 3:22.32)

♡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빈푸교회 어린이들 자전거 구입과 장학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미록교회 바이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이장현 선교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함께 동역해주세요

현지 휴대전화 +84-93-622-5038

카카오톡 ID: jazzpaul

이메일 : jazzpaul09@gmail.com

후원계좌

990-018690-790 하나은행 (침례교해외선교회 이장현)